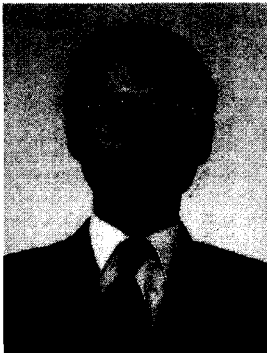


주정원료 수급 및 향후 전망



차 홍 기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정부 과장〉

■ 目 次 ■

- I. 서 언
- II. 우리나라 주정원료 변천
- III. 주정의 제조 과정
- IV. 주정의 주정원료 배정
- V. 주정원료의 국산화 계획
- VI. 향후 주정원료 수급전망
- VII. 결 론

I. 서 언

주정이란 술의 주성분(Wine spirit)으로서 화학적으로 에틸알콜(Ethyl alcohol) 또는 에탄놀이라 부르며 물의 함유여분에 따라 무수주정과 공업용주정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의 주세법에서는 전분질 또는 당질을 원료로하여 발효시킨 알콜분을 85도 이상으로 증류시킨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주정생산에 따른 원료사용 역사는 매우길어 10여세기경 연금술사들이 과실을 원료로 증류에 의하여 주정을 생산하였는데, 이때 나온 알콜분이 높고 무색투명한 액체를 아쿠아비테(Aqua vitae : 생명의 물)라하여 술보다는 의약품으로 취급했다.

주정은 원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발효주정과 합성주정으로 구분되며 발효주정은 각종농산물을 당화하여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주정을 말하고 합성주정은 에틸렌이라는 석유화학물질을 화학적인 합성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음료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원료는 전량 곡·서류등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되므로 제품의 안정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국내 주정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현황의 실상을 파악하고 WTO협약 및 OECD가입에 따른 관련사항과 향후 주정원료의 수급전망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주정원료의 변천

주정생산에는 전분질이나 당질이 포함된 어느 것이나 사용원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섬유질을 적당한 화학처리 또는 효소처리로 가수분해시켜 이용할 수도 있다. 당질의 원료로는 당밀이 있고,

전분질 원료로는 곡류와 서류가 있다. 곡류에는 쌀, 보리, 옥수수, 밀, 기타 잡곡류 등이 있으며 이들 곡류의 도정이나 제분시 나오는 부산물인 쌀겨와 밀기울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서류로는 고구마, 감자, 타피오카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섬유질로는 목재와 농산폐기물, 펄프폐액, 톱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정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주정공업은 곡류를 원료로하여 각 가정마다 소규모로 탁주나 소주를 제조하던 것을 1920년대에 이르러 공장규모로 주정을 생산하면서 그 사용원료로 당밀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표 1)하므로써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제하에서는 세수확대의 일환으로 주정공업을 육성하여 1940년대초에는 무수주정 생산체비를 갖추어 1942년 제주의 무수주정공장은 고구마를, 1941년 백두산부근 복선제지 화학공업은 펄프폐액을 주정원료로 당밀과 대체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며 그밖에 주정공장들은 수입당밀을 비롯한 미곡, 잡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였다.

광복후 정부가 식량확보정책으로 미곡의 주정원료로의 사용을 금지조치함에 따라 잡곡과 서류로 대체사용하게 되었으며, 소주소비량과 공업용 및 의약용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기존의 고구마로서는 주정원료로 충족치 못하게 되자 1952년부터 당시 외환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타원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당밀을 도입하여 사용케 되었다. 50년말 외환사정의 악화로 당밀 도입이 원활치 못하자 정부는 60년대초에 농산정책의 일환으로 고구마 생산전량을 주정원료로 지정함으로써 고구마 사용이 본격화 되었으나, 고구마의 사전확보 대책이 마련되지않아 원활한 주정생산을 못하고 그 부족분에 한하여 농림수산부의 추천을 받아 당밀을 수입 사용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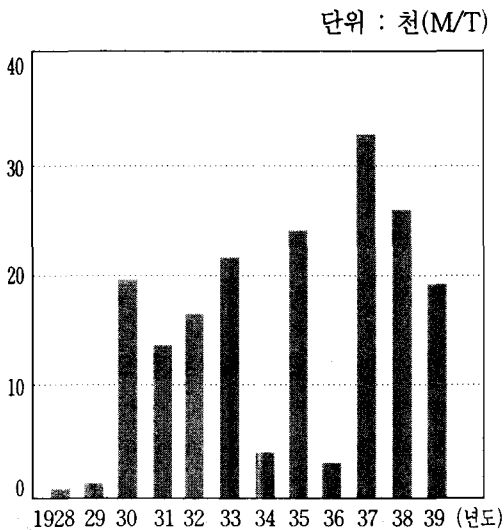
그후 정부의 고구마 증산정책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인해 주정원료로의 전량 공급으로도 소화시키지 못해 주정 수요증대를 위하여 증류식 소주와 탁약주에 50%의 주정을 혼합하는 사태가 일시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점차 주정생산량 증가로 이런 문제가 자연해소 되었다.

고구마, 당밀 병용정책은 1960년말부터 1970년대까지 일관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의 주정원료수급은 60년대와 비교할때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타피오카, 잡곡, 쌀, 보리등 새로운 대체원료 개발을 통한 원료 다변화 시기였다는 특징이 있다.

197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타피오카는 도입 초기에 당밀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수요가 많았으나 75년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당밀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기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타피오카의 도입량은 줄어들게되고 고구마의 계약재배가 부활되었으며 소맥, 옥수수, 옥분 및 기타 잡곡류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70년대초에 쌀보리를 주정원료로서 사용검토 된 바 있었으나, 식량의 낭비와 주정가격 상승문제로 보류되

<표 1> 대만 당밀 수입 추이



자료 : 「대한주정 30년사」 1982

〈표 2〉

년도별 주정원료 사용실적

단위 : M/T

년 도	주정생산 량(D/M)	생고구마	절 감	당 밀	보 리	옥 수수	조주정 (kl)	쌀	타피오카	기 타
1971	321,641	118,052	56,953	81,306						11,527
1974	437,167	167,938	61,009	44,876					70,213	
1977	652,948	113,083	134,075	209,200					11,484	3,318
1980	704,031	22,555	130,549	1,952	158,538	26,784	7,496			26,796
1983	835,004	21,977	60,031				82,534		146,461	880
1986	892,610	20,155	90,705		118,950		29,607		158,440	
1989	1,053,932	19,507	46,878		183,002		64,820		120,246	6,764
1990	1,020,007	8,553	55,190		190,285		57,541		121,715	805
1991	988,005	9,810	45,989		142,514		50,861	63,155	98,365	1,849
1992	1,023,794	5,811	36,114		118,308		51,968	143,999	51,049	653
1993	1,047,987	3,763	14,209		127,069		60,062	143,997	63,925	
1994	1,135,004	1,155	13,197		134,779		93,540	107,298	48,748	537
1995	1,155,195	7,963	3,330		94,736	46,608	89,059	44,367	137,129	707

었던 것을 1978년부터 원료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쌀보리가 주정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부터 재개되기 시작한 고구마 계약재배 사업은 주정업체와 농협간 구매 및 검사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원료수급의 차질로 1980년에 이체도가 중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보완책으로 80년부터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를 직접담당하고 주정업체는 농협군지부와 체결한 공급계약량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고구마사용이 감소하게 되었다.

1980년대 주정원료 수급상의 큰변화는 과거 주정 생산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당밀의 사용 금지와 조주정의 도입개시, 국산 쌀보리 계약재배, 타피오카의 원료정착등이다.

당밀의 그동안 가격과 수율이 높아 1952년부터 1982년까지 줄곧 도입되어 주정공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1983년부터 주정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대체원료로서 조주정과 타피오카의 사용량이 증가 되었

다.

1984년부터 정부의 재고과잉상태에 있는 보리의 소비와 농가 소득증가 및 외화절약을 위한 주정원료의 다변화 정책으로 보리의 주정원료 사용을 촉진시키므로써 과거 타부시 되어왔던 곡류의 주정원료사용이 재개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공해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자 정부는 공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발효시설의 확장 및 신설을 강력히 제한하고 공해문제가 전혀 없는 주정의 반제품인 조주정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정제시설을 권장하였다.

1990년에는 정부에서 보유한 과잉상태의 재고미(통일미)를 정부의 양특적자 해소와 주정가격의 인상억제를 목적으로 주정용으로 일부전용되므로써 수입원료와 대체 사용케 되었으나 정부 재고미(통일미)의 소진으로 1996년부터는 정부양곡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와같이 국산원료

의 생산감소 추세에 따라 주정원료의 국산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수입원료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Ⅲ. 주정의 제조과정

국내 주정생산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현재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고구마, 쌀, 쌀보리, 타피오카, 옥수수등 곡·서류의 전분질 원료를 이용하여 발효 증류공정을 통해 주정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정의 반제품인 조주정을 정제함으로써 주정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80년대 초까지 주정생산은 발효시설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 제조되었으나 80년 이후부터 정제시설을 이용한 주정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발효공정은 전분질 원료의 사용으로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원료비가 고가이므로 주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정제공정은 원료의 반제품(조주정)을 수입하여 사용하므로 공해문제와 원료비 및 제조경비가 적게 들어 주정가격의 안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96년 현재 주정생산능력은 발효시설이 755千D/M, 정제시설이 858千D/M으로 연간 1,613千D/M이며 이중 발효시설은 거의 완전가동되고 있으나, 정제시설은 58%정도의 여유가 있어 급작스럽게 주정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제시설을 활용한다면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Ⅳ. 정부의 주정원료 배정

그동안 주정원료 수급정책을 볼 때 정부의 주정원료 지정(배정) 내용에 적용된 원칙을 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주정원료는 국산원료를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고, 둘째 주정원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및 수입

원료개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였으나 원료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원료정책이 많았으며, 셋째 60~70년대 수입원료보다 비싼 국산원료를 배정받아 사용하더라도 원가사정시 고려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산원료의 사용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시적이거나 있었다. 넷째 80년대부터 원료수급은 국산원료의 과감한 공급 및 환경문제 해소와 농가소득증대를 고려한 원료정책, 제조원가를 절감하려는 새로운 대체원료 개발 등 원료수급의 안정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정원료의 국산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료대체로 인하여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어느정도 가격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주정업체는 국산원료 배정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게 되었다.

Ⅴ. 주정원료의 국산화정책

1960년대 주정원료의 대부분이 국산원료인 고구마에 의해 충당되었으나 70년대부터 주정 수요가 계속 증가되어 국산고구마로는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원료로서의 도입이 급격히 증가 되었다.

따라서 주정원료의 국산화 비율이 1965년 87.8%에서 1980년 79.0% 1985년 51.4% 1990년 47.5% 1995년 27.6%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표 3>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원료 중 수입원료사용 비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자 국산원료 사용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가 대두되어 77년부터 주정원료 완전 국산화 정책을 수립 시행코자 하였으나, 주정원료 국산화계획은 단지 정책적 목표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표 3〉

주정 원료별 주정생산량

단위 : 드람

년도별	주정 생산량 (D/M)(A)	국산 원료						수입 원료				소계(C)	B/A(%)
		생감	절감	쌀보리	쌀	기타	소계(B)	당밀	타피오카	조주정	기타		
1965	126,854	31,270	79,987				111,257				15,585	15,585	87.7
1970	287,695	81,424	133,870				215,294	49,535			22,866	72,401	74.8
1975	574,431	100,709	126,281			664	227,654	198,103	139,739		8,935	346,777	39.6
1980	704,031	13,152	253,000	290,044			556,196	2,620		36,075	109,140	147,835	39.6
1983	835,004	13,037	117,546				130,583		286,616	396,989	20,816	704,421	79.0
1985	878,270	12,283	164,584	274,924			451,791		239,060	187,419		426,479	51.4
1990	1,020,007	5,213	112,766	327,634		38,948	484,561		254,121	281,325		535,446	47.5
1991	988,005	5,976	93,935	265,457	146,437	11,115	522,920		215,760	249,325		465,085	52.9
1992	1,023,794	3,577	74,268	210,423	352,341	18,348	658,957		109,722	255,115		364,837	64.4
1993	1,074,987	2,372	30,678	235,580	359,254	9,506	637,390		142,029	295,568		437,597	59.3
1994	1,135,004	732	27,924	241,620	268,282	21,595	568,851		113,869	460,982		574,851	49.4
1995	1,155,195	4,995	7,054	185,232	110,904	10,849	319,034		311,219	439,825	85,517	836,561	27.6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80년을 고비로 다시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1983년 당시 국산주정원료 사용비율(15.6%)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주정원료로 수입에 소요된 외화는 4,9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시행착오 속에서 1983년 국세청은 주정원료 국산화계획(표 4)을 수립하여 현재 발효시설을 750千 D/M으로 고정하고 수요증가분은 정제시설로 생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발효시설원료를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1988년까지 100% 국산원료로 대체한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입원료보다 7~10배가 비싼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주정원가 인상의 부담으로 2차에 걸쳐 수정하여 일부는 대체가 되었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매년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쌀보리를 주정용으로 공급하였다. 이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동계작물로서 유희농지경작, 토지자원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1981년 한·태 구상무역(표 5)일환으

로 태국산 타피오카를 1차로 1982년부터 288천 M/T이 수입토록되어 있었고, 또한 추가도입량의 계약으로 87년말까지 6년동안 568,134M/T 수입에 6,949만달러의 외화가 지출되어 주정원료 국산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서 정부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정부는 국산쌀보리의 소비 다변화정책 일환으로 1985년 국산위스키 개발계획에 그레인 위스키 제조에도 국산보리 일부가 사용되도록 하였으나 주질문제로 인하여 계속 사용치 못했다.

1990년부터 정부의 재고미(통일미) 과잉으로 재고량이 천만석을 상회하자 정부는 양특적자의 부담과 보관상 문제점을 들어 1990년부터 탁·약주원료로 쌀을 사용토록 하고 1991년부터는 주정원료로도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나 재고미의 소진으로 지속적 정책이 아닌 단기조치로 5년간 공급한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국내산원료가 줄어들면서 국산원료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수입원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악화와 세계곡물시장의

〈표 4〉

수입원료의 국산보리 대체 계획

구 분		년차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발 호 생산계획량	계			750千D/M	750	750	750	750
	고 구 마			144	144	144	144	144
	기 타			606	606	606	606	606
보리대체계획				121千石(20%)	242(40%)	364(60%)	485(80%)	606(100%)
보리소요량				478千石(66千M/T)	956(132)	1,442(199)	1,920(265)	2,399(331)

자료 : 「국세청」 1983

〈표 5〉

한·태 구상무역에 따른 주정원료 수입현황

(단위 : M/T, US千\$)

곡 물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타 피 오 카	수입량	76,606	98,240	101,198	100,167	99,214	42,323	517,748
	금 액	9,511	15,198	12,824	10,167	12,121	4,380	64,201
옥수수	수입량						50,386	50,386
	금 액						5,290	5,290
계	수입량						92,709	568,134
	금 액						9,670	69,491

※1987년도 한·태구상무역 타피오카 수입량 일부 50,000톤을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로 곡종을 변경하여 수입함.

재고부족으로 수입가격이 폭등하여 1995년 주정용 수입원료 〈표 6〉의 외화지출은 무려 7,899만달러(약 624억원)나 되어 향후 국산원료 증산에 대한 정부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VI. 향후주정원료 수급전망

국산주정원료의 수급전망은 농민들의 3D현상 기피로 인하여 주정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곡·서류의 생산량이 매년 격감될 것이며, 수입원료는 생산국의 기상이변과 수요증대로 인한 재고부족 및 농업선진국들의 식량무기화 정책에 따른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수입가격이 큰폭으로 등락될 것이 예상되며, WTO 출범에 따른 수

입 의무화 등 일부 외국농산물과 수입주정의 의무수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세계곡물 생산은 농업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로 지난 3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곡물재고량을 점차 늘려왔다. 1960~65년간의 세계곡물총생산량은 8억 8220만톤 이었는데, 1985~90년간에는 16억 5950만톤으로 1.9배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약적인 곡물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증가와 환경보전에 따른 유희지의 확산으로 점차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원료로 수입 사용하고 있는 타피오카와 옥수수의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일 것이며 조주정 또는 사용원료가격의 인상에 편승

〈표 6〉

년도별 주정수입원료 현황

년 도	타 피 오 카		조 주 정		옥 수 수		당 밀		금액계 (千U\$)
	수량(M/T)	금액(千U\$)	수량(ki)	금액(千U\$)	수량(M/T)	금액(千U\$)	수량(M/T)	금액(千U\$)	
1980			8,280	2,958	39,081	7,719			10,137
1981		18,121	14,691	6,745			82,856	8,616	33,482
1982	118,408	9,551	16,498	5,947			196,888	13,043	28,541
1983	76,606	22,825	89,391	26,049					48,874
1984	156,917	19,447	44,465	13,187					32,634
1985	146,798	12,139	31,660	8,442					20,581
1986	119,864	17,981	35,911	9,076					27,057
1987	104,217	10,730	45,325	11,003	50,386	5,290			27,023
1988	139,955	9,270	63,689	16,939					26,209
1989	132,684	10,349	66,526	22,446					32,795
1990	123,773	10,656	60,283	20,420					31,076
1991	82,036	6,173	46,655	16,610					22,783
1992	52,252	4,120	59,509	19,146					23,266
1993	89,512	7,977	56,002	15,023					23,000
1994	48,131	6,718	87,425	30,620					39,338
1995	165,451	29,306	92,105	42,200	47,014	7,480			78,986

하여 점점 높은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원료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마와 보리의 국내생산을 장려치 않을 경우 양곡자급도는 물론 주정원료의 국산화 비중이 크게 저하 될 것이며 농가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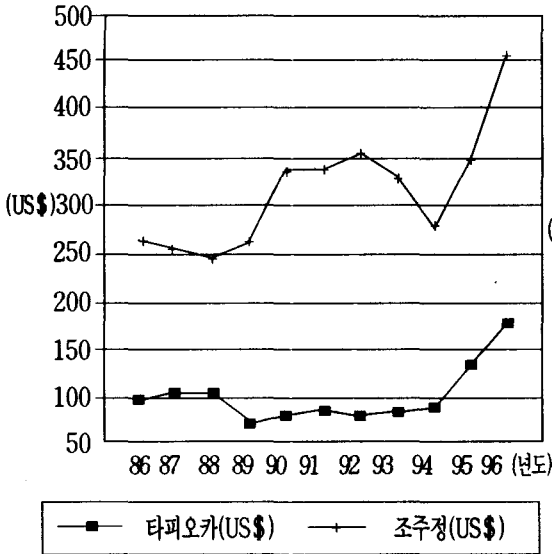
정부의 중·장기 국내산 곡·서류의 생산(공급)계획 <표 7>을 보더라도 향후주정원료로 가능한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등의 공급이 매년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국내산 주정원료 공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WTO 협약에 따른 쌀 및 해당원료의 최소시장접근물량<표 8>이라도 주정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람직하다.

국내산 원료의 감소와 WTO협약등 세계무역조건의 변화로 향후 주정원료의 수입증가가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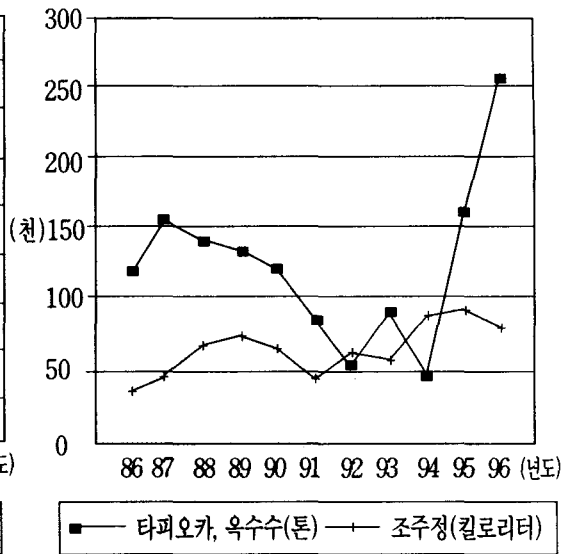
연적 이라면 현재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라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해외곡물시장을 통한 간접무역보다는 직접무역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원료 재배에 필요한 저렴한 임금의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광활한 유희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및 남미에 주정업계가 단독 또는, 콘소시움 형태로 그곳 정부나 민간단체와 장기 임대차 를 통해 주정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주정원료(곡·서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고 잉여 농산물을 국내외에 식용, 사료용으로 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법인과 조주정 공장을 합작투자 함으로서 자체적으로 산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공급받아 좋은 품질의 조주정을 생산하여 국내 외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주정가격의 안정화를

타피오카, 조주정 가격 추이



주정용 수입원료(타피오카, 조주정)도입현황



〈표 7〉 국산원료 공급계획(안)

단위 : 천톤

원료명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고 구 마(주정용)	43	44	45	45	46	47	47
보 리(주정용)	90	83	39	38	40	41	40
감 자(가공용)	25	28	31	34	37	40	41
옥수수(주정·가공용)	79	76	74	71	69	67	67
쌀(가공용)	235	240	245	250	255	265	275

자료 : 농림수산부, 1994

〈표 8〉 UR타결에 따라 수입하여야 될 쌀 및 주정의 최소 시장접근 물량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쌀(M/T)	76,961	89,787	102,614	102,614	128,268	153,921	197,575	205,228
주정(kl)	7,119	7,578	8,037	8,467	8,956	9,415	9,875	10,333

자료 : 농림수산부, 1994

도모하고, 주정의 수요 증가시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양국간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Ⅶ. 결 론

UR타결과 WTO체제출범 및 OECD가입에 따른 업종별 세부 개방화에 따라 98. 1. 1과 99.

1. 1에 소주제조업 및 주정제조업의 외국인투자 전면개방이라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정업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길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주정업계는 기업의 새로운 창출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업계 스스로 경영, 기술 혁신과 생산성향상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며 생산요소 측면에서 높은 수익성 창출을 위한 여건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주정원료

의 수입을 억제하고, 식량자급자족과 유희농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주정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원료(보리, 고구마)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적인 중·장기 증산 장려 정책의 수립,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국산원료의 감소에 따라 수입원료의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산지외국과 타피오카등 주정원료의 계약재배나 조주정 합작 투자를 통해 안정된 원료공급선을 확보하여야 하고, WTO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이 결정된 최소 시장접근물량중 양곡(쌀)의 주정원료 지정이 바람직하며 주정업계는 업계 스스로 주정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天地之氣, 暖則生, 寒則殺. 故性氣清冷者, 受享赤涼簿. 唯和氣熱心之人, 其福赤厚, 其澤赤長.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추우면 만물을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복받음 또한 박한 법이다. 오직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야 복받음 또한 두텁고 은택 또한 오래간다.

- 菜根譚중에서 -